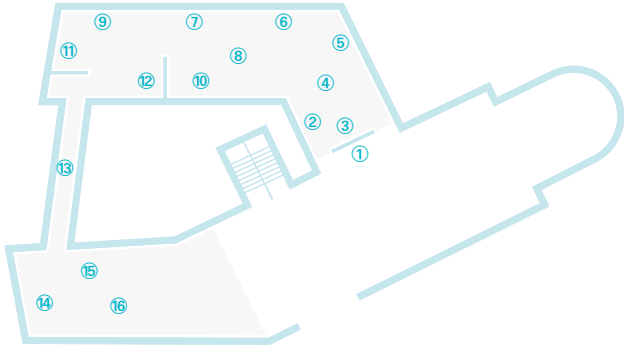


특별전
전시장
둘러보기



- ① 전시장 입구
- ② 한복, 시대와 함께 흐르다 한복으로 돌아보는 70년사
- ③ 한복, 세계를 품다 박근혜 대통령 한복 문화외교
- ④ 한복, 빛을 되찾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내외 한복
- ⑤ 그리움이라 부른다 해방 전 1920년대 한복
- ⑥ 멋쟁이들의 한복패션, 저고리 50-60년대 한복
- ⑦ 멋쟁이들의 한복패션, 치마 50-60년대 한복
- ⑧ 멋쟁이들의 한복패션, 치마저고리 50-60년대 한복
- ⑨ 품격에 맵시를 더하다 50-60년대 한복
- ⑩ 한복 황금시대 70-80년대 한복
- ⑪ 한복과 한류 한류 드라마 속 한복
- ⑫ 법고창신, 한복의 재해석 90년대 이후 한복
- ⑬ 시민기증 한복 사진전
- ⑭ 전시 주제 영상
- ⑮ 신한복 프로젝트 영상
- ⑯ 한복, 경계를 넘어서 신한복

청와대사랑채
오시는
법



지하철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로 나와서 뒤로 돌아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약 800m가면 청와대 분수대 앞에 청와대사랑채가 있습니다.

버스

안국동 정류장 하차, 도보 20분(1.4km)
1500, 272, 406, 708, 8272, 7022, 7025, 8710

경복궁 정류장 하차, 도보 15분(1km)
171, 272, 708, 109, 601, 1020, 7025

효자동 정류장 하차, 도보 5분(350m)
0212, 1020, 1711, 7016, 7018, 7022

기차

서울역 9번출구 버스 환승센터에서 1711, 7016 버스 탑승
→ 효자동 정류장 하차 / 도보 5분(350m)

전시 문의 한복진흥센터: 02-739-4687, 02-739-0505



한복,
우리가
사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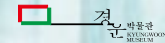


광복 70주년 기념 한복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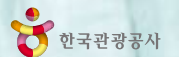
장소 청와대사랑채
기간 2015. 9. 12. 토 ~ 11. 1. 일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복진흥센터



이리자전서관





한복, 우리가 사랑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복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복의 과거는 오히려 풍성하고 다채로웠습니다. 지금보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매 순간 소박하게 또는 인상적으로 우리 삶의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한복은 우리 삶을 가장 독특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그 성찰과 재발견의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나일론에서 비로드까지, 50-60년대



멋쟁이들의 한복패션 전후 물자가 부족한 시대. 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한복을 일상복으로서 애용하였다. 60년대 이후 국내 섬유산업의 성장과 수입 원단의 도입으로 한복은 그야말로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져 멋쟁이들의 필수품이었다.

새로운 풍경, 신식 결혼 활옷과 원삼 대신에 서양의 웨딩드레스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한복웨딩 드레스는 이 시기의 혼성적인 복식문화를 잘 보여준다.

한복의 재발견, 90년대 이후



한복의 재해석 장인으로서의 한복인과 구별되어 전통을 좀 더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이영희 디자이너는 프랑스 파리 프레타포르테에 한복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세계적인 무대로 한국 디자이너들의 행보가 더 한층 넓어졌다.

한복과 한류 90년대 이후 한국 드라마와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영향은 한국의 복식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전통사극과 달리 세계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현대 사극 속 한복들은 또 하나의 창작물이자 도전이라 할 수 있다.

한복, 희망의 얼굴



한복, 빛을 되찾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영부인 한복 “흰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야 폭격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45년 태평양전쟁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이승만대통령의 육성. 백의민족은 한민족의 무의식에 살아있는 원형이다.

한복, 세계를 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외교 한복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해외의 주요 순방길에 한복을 착용하여 적극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문화외교 활동을 보여왔다.

한복의 황금시대, 70년대- 80년대



폼격에 맵시를 더하다 여성의 한복 만큼이나 이 시기 남성들의 한복에서도 고급스러움과 폼격을 추구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일명 반짋이라는 견직물로 된 마고자나 남성 양복지로 만든 두루마기는 맵시를 더하였다.

한복, 색의 향연 70년대, 80년대에 들어 한복은 점차 예복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리저 한복디자이너가 개발한 10폭의 A라인 치마는 한복의 우아함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자수, 금박, 염색, 색동 등 다채로운 기법이 선보였다.

동시대와 호흡하다, 오늘날



한복, 경계를 넘어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동시대 감성과 호흡하고 일상적으로도 입고 다닐 수 있는 신한복은 한복의 활용을 예복에서부터 일상 영역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이다.